

## 생존권보장과지역경제활성화촉구성명서

의안 번호	767
----------	-----

발의년월일: 2000. 12. 26

발 의 자 의 장 의원 의인

### 1. 제 안 이 유

- 풍요롭고 살기좋은 광양만에 국가 기간산업인 광양제철소가 건설되면서 삶의 터전을 잃고 지역의 개발이익보다는 광양제철소와 연관단지에서 발생하는 환경공해로 인한 자연의 파괴, 농수산 소멸과 피해, 도로·교통문제 등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수했음에도
- 포항제철은 고객중심의 조직체제 개편을 구실로 광양제철소의 기구와 인력을 대폭 축소 및 감축하면서 포항을 확대하는 등 지역과 주민들은 외면한 채 환경파괴와 지역경제를 말살하려고 하고 있어 이에 대응코자 함.

### 2. 주 요 내 용

1. 포항제철은 광양제철소의 구매계약 방식을 현행대로 다원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라.
1. 포항제철은 광양제철소로 인한 환경공해와 자연파괴 등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지역의 개발이익은 지역으로 환원하라.
1. 포항제철은 광양제철소의 주택과 학원단지 등 모든 시설을 완전개방하여 지역과 공존공생하라.

## 생존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구 성명서

- 환경파괴와 지역경제를 말살하는 포항제철은 각성하라 -

예로부터 우리 광양은 높고 수려한 산세를 자랑하는 백운산과 맑고 깨끗한 섬진강이 흘러 맛깔스러운 해조와 어패류가 풍부한 천혜의 광양만을 안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이었다.

풍요롭고 살기 좋은 광양만에 국가 기간산업체인 광양 제철소가 건설되면서 우리는 삶의 터전을 잃고 지역의 개발 이익보다는 광양제철소와 연관단지에서 발생하는 환경공해로 인한 자연의 파괴, 농수산물 생산의 피해와 소멸, 도로·교통문제 등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국가발전과 제철 산업에 협력을 다하여 왔다.

그 동안 포항제철은 광양제철소의 건설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여 연간 1조 5천억원 이라는 막대한 경영흑자로 세계 제일의 철강회사로 사세를 신장 하고서도 지역과 주민들을 외면한 채 환경파괴와 지역경제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

포항제철은 이번 2001년 1월 15일부터 고객 중심의 조직 체제 개편을 구실로 하여 광양제철소의 기구와 인력을 대폭 축소 및 감축하면서 본사 기능을 확대하는등 광양제철소에서 수행하던 구매계약을 포항에서 전담케 함으로서 광양지역 업체의 포항 유출과 수주중단·감소로 경기침체와 인구감소등 전반적인 약화를 초래하여 우리지역은 경제파탄과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제라도 포항제철은 지역경제를 말살하는 구색 맞추기의 조직개편은 즉시 철회하고 지역 주민들의 희생과 협력속에 이루어진 개발이익은 지역에 환원하고 광양제철소의 모든 시설을 완전 개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기업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우리 광양시의회는 유관기관과 시민단체, 14만 시민과 합심 단결하여 지역의 환경파괴는 물론 시민의 생존을 위협하면서 지역경제를 말살하는 포항제철의 각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포항제철은 광양제철소의 구매계약 방식을 현행대로 다원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라.
1. 포항제철은 광양제철소로 인한 환경공해와 자연파괴 등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지역의 개발이익은 지역으로 환원하라.
1. 포항제철은 광양제철소의 주택과 학원단지 등 모든 시설을 완전 개방하여 지역과 공존 공생하라.

2000년 12월 26일

**광양시의회 의원일동**